

국산 수술로봇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선다

사업비 5년간 124억원, 국내 AI·수술로봇 기업들과 공동연구 진행
 AI 기반 국산 수술로봇 이노베이션랩 구축해 임상 고도화 목표



의료원이 국내 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고도화

를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의료원은 AI 기반 수술로봇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국산 수술로봇의 임상 적용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며, 국산 의료로봇 기술 발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의료원 한국의료로봇센터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인 'AI 기반 수술로봇 이노베이션랩 구축 및 활용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총 12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

로젝트다.

의료원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맡고, 의대 이성 교수(신경외과학)가 연구책임자로 고영테크놀러지와 엘엔로보틱스, 뉴로메카 등 국내 AI 및 수술로봇 기업들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사업의 핵심은 세브란스병원 내 수술로봇 이노베이션랩을 구축하고, 실제 임상 환경과 유사한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기반 수술로봇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용 로봇수술실과 연구용 CT 등 의료장비를 갖춘 수술로봇 특화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로봇수술 전문의, 인프라 운영 인력, 임상연구 전문인력 등이 참여하는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이노베이션랩은 국산 수술로봇의 임상 밀착형 고도화, 이른바 'Cap-off R&D'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국산 뇌수술로봇, 심혈관 중재시술로봇 등을 대상으로 기능 완성도 향상, 적응증 확대, AI 기반 수술보조 기술 개발, 정밀제어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뇌수술 분야에는 의대 장원석 교수(신경외과학)가, 심혈관 분야는 의대 김중선 교수(내과학), 인공지능 분야는 의대 이창규(신경외과학), 신준재(용인 신경외과) 교수가 기업과의 연구개발에 참여한다.

또 향후 5년간 비약적 성장이 기대되는 로봇기술을 발굴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의 성장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연구개발부터 임상 검증, 교육훈련, 제품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의료로봇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책임을 맡은 이성 교수는 현

재 수행 중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사업과의 연계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진 교육훈련, 기술 검증, 제품화 지원 기능을 통합해 수술로봇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원이 추진 중인 AI 의료사업단과 의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이성 교수는 "이번 사업은 국내 수술로봇 기업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 가까운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사업 연구책임자 의대 이성 교수(신경외과학)가 척추수술로봇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의료원의 임상 역량과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 AI 기반 수술로봇 분야의 혁신 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이준원 교수, 차세대 역노화 치료제 개발 착수

'항노화 및 역노화 재생의료 중개임상연구' 수주, 6년간 84억원 투입



의대 이준원 교수(강남안과)가 보건복지부 주관 대형 국책 연구과제를 수주해 차세대 역노화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이준원 교수 연구팀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중 '항노화 및 역노화 재생의료 중개임상연구' 분야 과제 수행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과제는 1차년도 연구 수행 후 단계 평가를 거쳐 2차년도 지속 여부를 검증받는다. 이에 따라 향후 최대 6년간 총 8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시각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망막 세포는 재생 능력이 거의 없어 노화에 매우 취약하다. 그간 의학계는 노

화를 되돌리기 불가능한 '비가역적 영역'으로 여겼기에, 퇴행성 안질환 또한 완치가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최근 유전생물학자인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를 중심으로 노화의 진짜 핵심 기전은 유전자 발현 스위치를 켜고 끄는 소프트웨어의 오류, 이른바 '후성유전학적 변화(Epigenetic change)'라는 새로운 가설이 대두되고 있다. 마치 스마트폰 오류 시 초기화로 복원하듯, 노화된 세포도 젊은 시절의 유전체 정보로 되돌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1월 미국 FDA는 세계 최초로 관련 기술의 인체 대상 임상을 승인했으며, 녹내장과 시신경병증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치료임상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이 교수는 싱클레어 교수와 함께 노화 역전 개념을 이용한 안과 질환 치료제 개발 연

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온 연구자로, 현재 항반변성 치료제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연구 과제명은 '지속형 자기증폭 RNA/지질나노입자 플랫폼을 활용한 고효율 후성유전적 리프로그래밍 기술 및 차세대 역노화 치료제 개발'이다. 지속형 자기증폭 RNA(saRNA)와 지질나노입자(LNP)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부작용을 줄인 고효율 후성유전적 리프로그래밍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과 분야에서 임상 적용이 가능한 차세대 역노화 재생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준원 교수는 "안과 분야 역노화 연구와 후성유전적 리프로그래밍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노화 관련 안질환의 치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선 대하 대표 5억 5000만원 기부

강남세브란스병원 새병원 건립기부금



박대선 유한회사 대하 대표(사진 가운데)가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새병원 건립기부금으로 5억 5000만원을 전했다.

박대선 대표는 2021년 강남세브란스병원 새병원 건립기부금으로 30억원을 약정하고,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후원 중이다. 이번 기부까지 총 16억 5000만원을 후원했다.

박대선 대표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더 나은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미래 의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새병원 건립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대선 대표는 해외 거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세브란스병원 THE 미래 발전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용인,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후손 거대 간암

교직원 1% 나눔 기금·지역사회 후원으로 진료비·생활비 함께 지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6·25 전쟁 당시 한국에 파병됐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후손에게 거대 간암 절제술을 시행하고, 진료비·생활비를 지원했다.

수술을 받은 환자는 에티오피아 국적 유학생 아베네저 요하네스 씨(29·남)로, 화천군의 6·25 전쟁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명지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요하네스 씨는 올해 2월 간 초음파에서 간 종괴가 의심돼 정밀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간 우엽에서 거대 간세포암이 확인됐고, 간문맥 침범이 동반된

진행성 병변으로 진단됐다.

의료진은 종양의 크기와 위치, 환자의 임상 상태와 향후 치료의 지속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다학제 진료를 진행했다. 소화기내과·외과·영상의학과·혈액종양내과·방사선종양학과 등이 참여해 다학제에서 일차 치료로 수술이 결정됐다.

의대 노승윤 교수(용인 간담췌외과) 팀은 4월 10일 간 우측 절반(우엽)을 제거하는 우간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 전 CT 검사에서 진단 직후보다 종양이 더 커지고 간문맥 침범이 확인되는 등 진행 속도가 빠른 상태로 확인돼 혈관 외과·대장항문외과 협진도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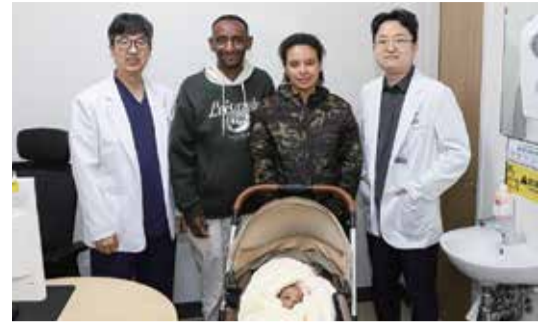
환자가 젊고 간 기능도 유지되고 있어, 수술 후 큰 합병증 없이 회복해 같은달 28일 퇴원했다. 요하네스 씨는 현재 외래에서 추적관찰을 받고 있다.

요하네스 씨 치료 건은 내·외과적 치료뿐 아니라 교직원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환자를 치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환자의 수술 및 입원 진료비는 '교직원 1% 나눔 기금'으로 지원했다. 환자 가족의 입국 항공료, 긴급 생계비 등은 성남 만나교회와 교인,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인 월드휴먼브리지, 명지대학교 교수기도화·유학생 모임 등을 통해 모금됐다. 지역 선교단체인 한국예수전도단(YWAM)은 환자와 가

족의 숙소를 지원했다.

집도의인 노승윤 교수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빠르게 진행된 거대 간암이었지만, 환자의 나이와 보존된 간 기능, 그리고 진료과 간 협진 덕분에 안정적인 수술과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환자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대 임태섭 교수(용인 소화기내과)는 "혈관 침범이 동반된 거대 간암은 수술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주기적인 추적관찰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며 "환자가 학업과 진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하네스 씨는 용인세브란스 병원 '성인 입환자 소원성취 프로그램' 대상자로도 선정돼, 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일정은 현충일을 기념한 춘천 에티오피아 기념탑과 환자가 보고싶어 했던 강릉 바다 구경 등으로 짜여졌다.

강남 호흡재활센터, SCL그룹과 협력 몽골에 호흡재활 의료기기 기증 및 교육 지원

강남 호흡재활센터는 지난달 22일 몽골국립의과대학병원(MNUMS)에서 호흡재활 워크숍을 개최하고 호흡재활 의료기기 기증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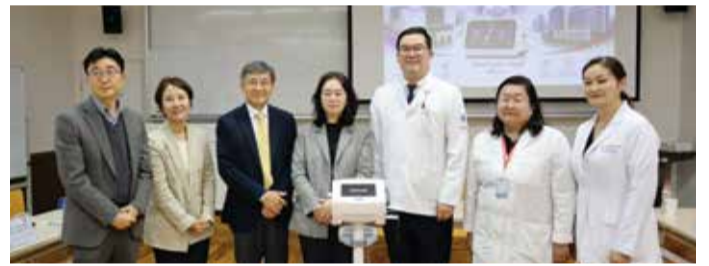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센터와 재단법인 서울 의과학연구소(SCL)가 공동 추진하는 국제 의회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몽골 내 중증 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지원과 체계적인

의료 기술 전수를 골자로 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기증식에서 SCL그룹은 자력으로 가래 배출이 어려운 중증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장비인 '기침유발기(CoughAssist E70)'를 무상 기증했다. 이 장비는 환자의 호흡 주기에 맞춰 공기를 주입한 뒤 빠르게 전환해 비침습적으로 기침을 유도한다. 통증이

수반되는 기존 기도 흡인(suction) 방식에 비해 환자의 편의성과 치료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단순 장비 기부를 넘어 현지 의료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호흡재활센터 의료진은 현지 인력을 대상으로 기침유발기 운용법을 포함한 호흡재활 전문 교육을 진행해 기증된 장비가 임상에서 즉각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원했다.

최원아 호흡재활센터 소장은 "몽골은 지난 수년간 의료진 4명을 무료로 연수시키고 현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해 온 지역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지에서 실질적인 환자 진료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SCL)는 지난해 강남세브란스병원과 해외 중증 호흡부전 환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 의료사회공헌 및 교육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크라운해태와 함께하는 '見生조각전'

국내 유명 작가 작품 20점 원내 전시



의료원이 크라운해태와 함께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조각전을 열었다.

크라운해태는 현대조각의 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공헌사업으로 2016년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야외조각전을 개최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2017년부터 3회째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첫 조각전에서 한 관객이 "조각을 보니 생기가 솟아나는 것 같다"고 해서 견생조각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되고 있다.

이번 견생조각전에는 세브란스병원 본관과 중입자치료센터, 어린이병원 등에 조영철, 전신덕

작가 등 국내 유명 작가 20명의 작품 20점이 8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전시된다.

본관에 설치된 조영철 작가의 '사막여우들은 사막을 떠나 인간의 빌딩 숲속에서 새로운 터전을 찾는 사막여우들에 빔대어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중입자치료센터에 있는 전신덕 작가의 '꿈은 돼지 호형물에 왕관을 씌우고 등에는 글자 '꿈'을 올려놓아, 현대문명을 바쁘게 살아가는 삶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면서, 미래의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제재했다.

용인, 소아 뇌파검사실 개소

성인과 공간 분리, 전용 장비·전담 인력 배치...소아 친화적 환경 조성



용인세브란스병원은 10일 2층 외래 공간에서 소아 뇌파검사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성인과 함께 사용하던 뇌파 검사 공간을 소아 전용으로 분리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조성했다.

이를 통해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소아 환자에 최적화된 검사 환경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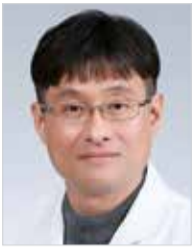
기존 성인과 소아가 함께 사용하던 검사실을 소아 전용 공간과 동선을 마련함으로써 면

역력이 취약한 소아 환자의 감염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검사 대기 시간도 단축했다.

최경민 소아청소년과장은 "비록 소규모로 시작하는 소아 전용 검사실이지만, 아이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아 환자에게 더욱 쾌적하고 전문적인 검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항암제 내성 암 치료 가능한 신물질 발견

PPS03, 암세포만 공격해 사멸 유도...기존 항암제 대안으로 제시



박기청

항암제 내성을 보이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물질이 발견됐다.



임진홍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생

의대 박기청(외과학), 임진홍(강남 간담체외과) 교수, 분당차병원 최경화 교수, 테라퓨틱스앤엠씨 공동 연구팀은 기존 항암제에 내성을 가진 전이암에서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사멸하는 신물질 PPS03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체재료학(Biomaterials, IF 12.9) 최신호에 실렸다.

정상세포는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종(ROS)을 생산한다. ROS는 세포가 성장하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일정 기준치를 초과해 쌓이면 세포가 사멸한다. 암세포도 성장하거나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전이됐을 때 ROS가 높게 측정되는데, 많은 연구진이 ROS를 증

가시켜 암세포 사멸을 연구하고 있다. 문제는 ROS가 증가하면 정상세포도 같이 사멸하는 부작용이 있다.

연구팀은 정상세포와 달리 전이가 된 암세포의 경우 세포가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주변 액체를 흡수하는 거대음작용(macropinocytosis)으로 신물질 PPS03을 흡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분석 결과, 전이암세포의 거대음작용에서 PPS03의 철 이온(ferrous iron)과 셀레노메티오닌 이온(selenomethionine)이 활성산소종을 증가시켜 암세포 사멸을 유도했다.

연구팀은 기존 항암제(cisplatin)에

내성을 가진 간암 환자의 암세포를 대상으로 PPS03을 통한 암세포 사멸을 확인했다.

임진홍 교수는 "PPS03은 기존 항암제에 내성을 가진 전이암에 효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아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청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전이암 특이적 항암효과를 확인한 신물질은 현재 임상연구를 준비 중이며 상용화를 통해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페론 감마와 물리적 자극, 멜라닌세포 부착 무너뜨려 백반증 유도해



오상호

의대 오상호, 이은정, 권일주 교수(피부과학) 연구팀은 백반증의 주요 병인 인자인 인터페론 감마와 마찰·압박과 같은 기계적 스트레스가 멜라닌세포의 기저막 부착을 약화시켜 세포 탈락이 일어나 백반증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영국



이은정

피부과학회지(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IF 10.6)에 게재됐다.

백반증은 주로 면역반응에 의해 멜라닌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팔꿈치, 무릎, 손가락 등 마찰이나 자극이 잦은 부위에 병변이 잘 생기고, 상처나 압박 부위에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는 코브너 현상이 관



권일주

찰된다는 점에서 물리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돼 왔다.

그동안 각질형성세포와 멜라닌세포 사이의 결합에 관여하는 E-cadherin 감소가 백반증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강조돼 왔다. 그러나 각질형성세포는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며 분화와 탈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반면 멜라닌세포는 피부 기저층에서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저막과의 안정적인 부착이 세포 생존과 위치 유지에 더 핵심적이다.

연구팀은 멜라닌세포가 기저막에 부착하는 데 관여하는 핵심 분자를 찾기 위해 기존 전자현미경 자료와 항체 배양을 통합분석했다. 그 결과, 멜라닌

세포의 기저막 부착에는 인테그린 베타1과 국소부착인산화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백반증 환자 피부 조직에서 이들 부착 관련 분자의 발현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백반증 병변에서는 정상 피부에 비해 인테그린 베타1과 국소부착인산화효소 발현이 감소해 있었다.

인체 유래 멜라닌세포와 인체 피부 조직 모델을 활용한 실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백반증의 주요 병인 인자인 인터페론 감마는 면역 세포가 분비하는 염증성 신호물질로, 멜라닌세포 손상에 관여한다. 연구팀은 멜라닌세포를 인터페론 감마에 노출시킨 결과, 인테그린 베타1과 국소

부착인산화효소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기계적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멜라닌세포가 기저층에서 상부로 탈락하는 현상이 재현됐다. 즉, 면역 자극과 물리적 자극이 동시에 작용할 때 멜라닌세포의 부착 구조가 붕괴되고, 백반증 병변 형성에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cathepsin L이 국소부착인산화효소 분해를 매개하는 핵심 인자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한 약물 억제 실험을 통해 야누스인산화효소 억제제가 인터페론 감마에 의해 유도되는 부착 신호저하 경로를 차단하고, 멜라닌세포 탈락을 억제할 수 있었다.

신장이식 거부반응, 혈액검사로 예측 정확도 높인다



의대 이주한 교수(외과학)와 서울대학교병원 이식혈관외과 조아라, 민상일 교수 공동

연구팀은 신장이식 환자의 무증상 거부반응을 예측하는 비침습적 평가법의 유용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국제외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IF10.3) 최신호에 게재됐다.

신장이식 후 새롭게 생성되는 공여자 특이항체(dnDSA)는 이식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면역학적 위험신호다. 항체가 검출된 환자 가운데 실제 조직검사에서 거부반응이 확인되는 비율은 30~40% 수준에 불과하지만, 상당수 환자가 출혈과 통증, 입원 부담이 따르는 조직검사를 받는다.

연구팀은 최근 비침습 바이오마커로 주목받고 있는 공여자 유래 세포유리 DNA(dd-cfDNA)를 통해 거부반응

을 조사했다. 세포유리 DNA는 이식받은 신장에 면역학적 손상이나 염증이 생기면 혈액을 통해 검출되는 DNA 조각이다.

연구팀은 국내 3개 이식센터에서 신장이식 후 안정적으로 이식신기능을 유지하는 환자 123명(공여자 특이항체 양성 77명, 음성 46명)을 대상으로 혈액 내 세포유리 DNA 수치와 조직검사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여자 특이항체 양성군의 세포유리 DNA 중앙값은 12%로 음

성군의 0.3%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장 내 미세혈관에 염증이 심할수록 세포유리 DNA 수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 조직검사 진단 기준인 밴프 지표 기준으로 염증 점수가 0-1 점인 환자의 세포유리 DNA 중앙값은 0.54%였지만, 2점 이상에서는 1.6% 이상으로 높아졌다.

세포유리 DNA를 통한 거부반응 예측 결과도 기존보다 높아졌다. 공여자 특이항체만으로 거부반응을 예측했을 때 진단 성능(AUC)은 0.74였으나, 세포유리 DNA 검사를 함께 적용한 경우 0.81로 향상됐다.

특히 세포유리 DNA 수치가 1.0% 미

만인 환자를 저위험군으로 분류했을 때, 실제 거부반응이 없을 확률인 음성 예측도는 97.8%에 달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로 조직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더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주한 교수는 "공여자 특이항체가 발견되더라도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세포유리 DNA를 임상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히 활용하면 환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이식신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맞춤형 모니터링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보건의료센터, 남북 보건협력 로드맵 통일부 연구과제 수주



제중원보건개발원 통일보건의료센터가 지난 달 28일 통일부가 공모한 정책 연구

과제인 '남북 보건 인프라 협력 추진 방안 연구'를 수주했다.

12월 말까지 5000만원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이번 연구는 향후 남북 보건으로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북한 보건으로

인프라 현황과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병원과 의료인력, 제약공장 및 의약품 공급체계, 응급·방역체계, 식수·위생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제기구와 NGO, 제3국과 연계한 협력 모델을 분석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과 시범사업 모델을 제시해 향후 남북 보건협력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책임자인 보건대학원 권준욱 교수는 "남북 보건으로 협력은 인도주의적 가치뿐 아니라 한반도 보건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실현가능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글날 제정 100주년 특별전 '우리말, 한글, 연세얼'

연세 역사 속에서 지켜온 우리말과 글에 담긴 정신 조명

연세대가 창립 141주년 및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특별전 '우리말, 한글, 연세얼'을 개최한다. 의대 동은의학 박물관은 연세대 학술문화처 박물관과 공동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이번 전시를 운영한다.

이번 특별전은 한글 연구에 제약이 많았던 시기에도 연세가 지키고 발전시켜 온 한글 연구를 조명한다. 전시는 '겨레', '반갑습니다, 반가', '파른', '우

리'는 순우리말로 구성된 네 개의 주제를 통해 각 주제와 시기에 따라 한글 사랑을 지속해 온 연세 얼의 가치를 소개한다.

첫 번째 주제인 '겨레'는 한글 사용이 곧 항일 운동이었던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한글을 지켜 겨레 얼을 보존하고자 했던 연세 한글 스승들의 삶과 정신을 담았다. 주시경의 제자이자 연세대 부총장을 지낸 최현배의 '우리말본 첫

재매'를 비롯해 조선일보사에서 발행한 일제강점기 '문자보급 교재', 조선어학회 편 '조선말 큰사전' 등 우리 말과 글의 역사에서 귀중한 유산으로 남은 자료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두 번째 주제인 '반갑습니다, 반가'는 연세와 인연을 맺은 선교사들의 한글 인식을 살펴보고, 당시 기독교와 한글이 서로에게 끼친 영향과 한글 사용 확대 과정을 소개한다. 언더우드 교정의 흔적이 남아 있는 1904년 '신약전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된 '해부학' 등을 통해 근대의 문자로 자리 잡은 한글을 새롭게 조명한다. 부제로 쓴 '반가'는 최현배가 순우리말 '반갑습니다'를 줄여 아침 인사로 쓰자고 제안한 말이다.

세 번째 주제인 '파른'은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유적인 석장리 발굴을 이끈 파른 손보기 교수가 고고학 학술 용어의 한글화를 이룩해 낸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 다룬다. 1968년 구석기시대 연구에 사용되는 용어를 우리말로 체계화한 '구석기 관계 용어'를 비롯해 '석기의 이름, 무리 짓기, 사람 뼈에 관한 우리말의 연구 정리' 등의 자료와 함께 구석기시대 석기와 동물 뼈가 전시돼 한국 구석기 연구의 토대가 형성된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 주제인 '우리'는 연세의 한글 사랑이 현재까지 이어져 실생활 속 어떠한 유산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는지 조명한다. 최초 한글 전용 가로쓰기로 인쇄된 '연세춘추'와 외국



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학당 자료, '연세 한글탑' 등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연세 속 한글 찾기'와 같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세브란스, '뇌 신호로 움직이는 로봇' 세계 첫 개발 착수



나 동 옥

세브란스가 사지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웨어러블 휴머노이드 개발에 나선다.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주도로 국내 중요 산·학·연·병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



최 원 아

은 뇌 신호로 로봇을 제어하고, 로봇의 감각을 다시 뇌로 전달하는 실시간 연동 시스템을 개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 의료기기 국산화를 실현한다. 이번 사업은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AI가 사지마비 환자의 뇌 신호를 읽어 로봇을 움직이고, 로봇이 감지한 촉

각·압력·자세 정보를 뇌로 되돌려주는 '양방향 뇌-AI-로봇 연동' 의료기기 개발이 목표다. 개발에는 7년간 국비 202억 5000만원에 민감 부담금 등 약 3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사지마비 환자를 위한 전신형 외골격 로봇, 웨어러블 휴머노이드 개발이다. 과제 주관기관인 엔젤로보틱스가 개발을 총괄하고, 뇌연결 기술 개발은 DGIST 등이, AI 기반 뇌신호 처리는 KAIST가 담당한다. 뇌 전극 삽입은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가 수행한다.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는 삼성서울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과 임상 연구의 핵심축으로 참여해 외골격 로봇의 임상 적합성 검증, 임상시험 설계, 환자 평가 프로토콜 수립 등을 담당한다. 의대 나 동옥(재활의학), 최원아(강남재활의학과) 교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로봇재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사업 1단계인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고밀도 피질침습형 전극과 뇌-로봇 통합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 2단계인 2028년부터 2029년까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

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수행한다. 3단계인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뇌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기반 인코딩·디코딩 기술, 전신형 외골격 로봇을 초저지연 통신으로 연결한 조합형 의료기기를 완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와 상용화를 추진한다.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는 이 과정에서 임상시험 프로토콜 설계, 환자 모집과 평가, 로봇 사용성 및 안전성 검증을 맡는다. 특히 공학 연구실에서 구현된 기술이 실제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임상 번역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용인, 2026-1차 전체교수회의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20일 병원 4층 대강당에서 2026-1차 전체교수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기창 의료원장과 최재영 의대학장, 정영수 치대학장, 김용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박진오 용인세브란스병원장 등 100여명의 교원이 참석했다. 의대 김진권 용인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2026학년도 1학기 신입 교원 및 보직자 소개, 우수업적 교원 시상, 병원 경영 현황 및 주요 사업 발표, 의대 용인캠퍼스 및 연구 현황 발표 등이 이뤄졌다.



우수업적 교원에는 의대 김경민 교수(용인 내분비내과), 이종민 교수(용인 대장항문외과), 윤덕용 교수(의생명시스템정보학)가 선정됐다.

발표 이후에는 의대 교수평의회 위원인 손은진 교수(용인 이비인후과)의 진행으로 질의응답과 참석자들 간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가졌다.

간호대, 홍콩대·홍콩중문대와 협력 글로벌 교류 행사 성료

간호대학이 1일부터 5일까지 홍콩대학교와 홍콩중문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인바운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홍콩대 학부생 5명과 홍콩중문대 학부생 6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간호대 교육 환경을 경험하고,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학생들은 간호대 소개와 캠퍼스 투어를 비롯해 전공 특강, 임상 현장 견학 등에 참여했



으며, 간호대생들과 교류 활동을 통해 양국의 간호교육과 의료 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현경 간호대학장은 "해외 우수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해 학생들의 국제적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대, 구강검진 행사 개최

치과대학이 대동제를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구강검진행사를 진행했다. 치대 학생회와 치대병원 원내생진료실은 치대를 알리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치대 학생들은 행사장을 방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상태 확인과 치과상담, 올바른 양치 교육, 구강관리 용

품 등에 대해 설명했고, 치대병원 내 교육과 실습,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원내생진료실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700명의 학생들이 수검을 받았으며, 이들은 치대 학생들의 행사 준비와 구체적인 구강 관련 안내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정영수 치대학장은 "이번 행사가 치

과대학과 구강보건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됐길 기대한다"면서 "연세대 재학생들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원내생진료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빛담아이의 작은 사전' 캠페인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팀 '빛담아이'가 지난달 8일부터 약 2주간 연세암병원 5층 연결통로에서 캠페인 '빛담아이의 작은 사전' 포스터 전시 및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캠페인은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는 소아청소년 환자 및 그 가족들이 마주하는 일상적인 돌봄의 순간들을 사전 형식으로 재해석하고,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빛담아이의 작은 사전'은 아이와 가족이 병원과 가정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핵심 단어 6개로 정의했다. 질병의 여정에 곁을 지키며 함께 시간을 걸어가는 '동행', 지나가는 시간에 의미를

더하는 '기억',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줄여가야 하는 '통증', 질문과 우려를 나누고 치료의 목표와 방향을 함께 이야기 해나가는 '소통', 아이가 아이답게 살아가 수 있도록 지켜주는 '놀이', 곁에서 함께 견디는 사람들을 뜻하는 '가족'으로 돌봄의 진정한 가치를 담았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내원객과 교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돌봄'에 대한 생각과 아이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포스터에 붙이며 하나의 거대한 사전 포스터를 완성했다. 포스터는 낯설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알아보는 소통 창구가 됐다.

의료원, 복지부 주관 의료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 선정 5개월 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형 AI 교육



의료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의료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기사, 전산, 사무직 등 다양한 직군의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AI 기반 직무 역량과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이다. 의료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은 이번달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입문부터 이론, 심화, 실습, 프로젝트 과정까지 5단계에 걸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디지털헬스실과 인재경영실은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 교육 체계를 강화해 실무 역량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직무 기반 실무 콘텐츠 설계와 다직종 융합 교육, AI 실습 환경 기반 교육, 글로벌 사례 연계 등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1단계 교육에는 교직원 78명이 참여해 구글 제미니(Gemini) 기반 업무 효율화, 자료 기반 질의응답 도구인 노트북LM(NotebookLM) 활용, 심층 자료 조사 기능인 딥리서치(Deep Research)를 통한 정보 분석 등 실무 중심의 AI 활용 실무 역량을 익혔다.

16일부터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AI 기반의 업무 자동화를 주제로 '바이트코딩 부트캠프'를 2단계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16일에는 2단계 교육 내용을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프로젝트로 완성해보는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총괄책임자인 이은 인재경영실장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AI 리터러시를 체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교육이 병원 내 AI 활용 문화 확산과 혁신적인 성과 창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간호대, 이채연 장학금 수여식 개최

간호대학은 5일 의대 의학도서관 라운지에서 이채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후배들을 위해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채연 동문(간호대 80년 졸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의 밤'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올해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장학금 수혜 졸업생 대표의 감사편지 낭독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장학 졸업생은 "이채연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자 미래를 향한 동기였다"면서 "훗날 후배들을 위해 도움을 전할 수 있는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채연 장학금은 이채연 동문



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간호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지원하고자 2014년 제정됐다. 지금까지 35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용인, 세계 손위생의 날 기념행사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6일과 13일 세계 손위생의 날(매년 5월 5일)을 맞아 손위생을 통한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6일 병원 지하 2층 직원식당 앞에서는 올바른 손위생 체험 및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교직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 교직원들은 미생물을 시각화한 형광로션을 손에 바르고 씻은 뒤, 자외선 뷰박스(View Box)에 손을 넣어 미처 씻기지

않은 부위를 직접 확인하며 올바른 손위생 방법을 익혔다. 감염관리 퀴즈에 참여한 교직원에게는 휴대용 손소독제 등 기념품도 제공했다.

이어 13일에는 병원 4층 대강당에서 '2026년 손위생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박진오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2025년 손위생 수행률 모니터링 결과 100%를 달성한 14명의 교직원과 2개 부서에 상장과 함께 포상했다.

「게시판」

의대 박성리 교수(용인 정형외과)가 최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 43회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국제 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BESS)과 내시경 척추융합술(BE-TLIF)의 임상적 유효성과 수술 후 기능 회복, 조기 회복 및 회복 평가 등 척추 내시경 수술 분야의 연구 업적

을 인정받았다.

치대 이채나 교수(영상치의학과)가 최근 제15차 아시아영상치의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국제학술지 '구강영상의학(Oral Radiology)'에 게재한 '딥러닝 기반 파노라마 방사선영상 스타일 표준화' 연구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연세대 지역거점 입학설명회 열려

용인, 경기 거점으로 5년 연속 지역 입시정보 격차 해소 기여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4층 대강당에서 '2027학년도 연세대학교 지역거점설명회(경기)'가 열렸다. 병원은 경기 지역 거점으로, 설명회 장소를 제공하고 행사 운영을 지원했다.

지역거점설명회는 연세대 입학처가 대입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신뢰도 높은 입학 정보 전달을 위해 매년 전국 주요 거점에서 여는 행사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지

역 학생·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환영사(이삼열 입학처장) ▲2027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및 2028학년도 주요 예고사항 안내 ▲전년도(2026학년도) 선발 결과 안내 및 사전 질의응답 ▲입학사정관 1:1 개



별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2년부터 매년 경기 지역을 대표해 설명회 개

최에 협조하며, 지역 학생·학부모가 가까운 곳에서 입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다.

이원규 미주동창 30만달러

의대 신축기부금

이원규 미주동창(의대 69년 졸업)이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으로 30만달러(약 4억 5300만원)를 후원했다.

정형외과 진료개시 100주년 기념식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원규 미주동창의 아들 이형일 후원자와 석경수 정형외과 학교실 주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형일 후원자는 “아버지를 대신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아버지의 모교가 세계 최고의 의학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정형외과학교실 또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석경수 주임교수는 “모교를 위해 거액을 후원 해주신 이원규 선배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



씀을 드린다”며 “이번 후원금은 신축의과대학내 이용설 기념 역사관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원규 미주동창은 후원금뿐만 아니라 조부 이용설 선생의 친필 자서전 원고도 함께 기증했다.

유중근 중앙방수기업 회장 4억원

강남세브란스 새병원 건립기부금

유중근 중앙방수기업(주)회장이 최근 강남세브란스 새병원 건립을 위해 4억원을 후원했다.

유중근 회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세심한 진료에 항상 감사하다”며 “성공적인 새병원 건립을 통해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도약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5년간 10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기부를 약속해주셨는데, 3년만에 완납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유중근 회장님의 뜻깊은 마음을 알기에 새병원 건립에 더 큰 노력



을 쏟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중근 회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 THE 미래 발전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강지현 ESR켄달스퀘어리츠 전무 3억원

의대 정형외과학교실 발전기부금

강지현 ESR켄달스퀘어리츠 전무가 최근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발전기부금(임상)으로 3억원을 후원했다.

강지현 전무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으

로 세브란스의 발전을 보면 항상 남일 같지 않은 기분”이라며 “박시영 교수님을 비롯해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들께 감사드리며 정형외과학교실이 한층 도약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고 황영환 미주동창 12만 5000달러



의대 신축기부금

고 황영환 미주동창(의대 60년 졸)이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으로 12만 5000달러(1억 8124만원)를 후원했다.

황영환 미주동창은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

으로 거듭날 모교의 성공적인 신축을 기원하며 후원금을 보낸다”고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황영환 동창은 2005년 후원을 시작했으며 의과대학 발전·신축·장학기부금 등 꾸준히 모교를 향한 사랑을 보내주고 있다. 이번 기부로 누적 후원금은 8억 8000만원을 넘어섰다.

월드휴먼브리지 2억 6057만원

어린이병원·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

사단법인 월드휴먼브리지에서 의료원의 B to D 캠페인 일환으로 어린이병원과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으로 약 2억 6057만원을 전달했다.

B to D 캠페인은 출생(Birth)부터 임종(Death)까지 생애 전 주기를 책임지자는 의미다. 월드휴먼브리지는 캠페인에 동참해 2월 김병삼 이사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경기도 성남시 만나교회 주일예배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처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월드휴먼브리지 김병삼 이사장, 배재학 사무총장, 인영석 운영위원장, 박지인 모금팀장과 금기창 의료원장,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이상길 연세암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삼 이사장은 “아픔을 겪고 있는 어린 생명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며 “이번 캠페인이 교계와 함께 대한민국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외면받기 쉬운 의료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월드휴먼브리지와 만나교회에 감사드린다”며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의료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이우성 SGC에너지 대표이사 이우일 유니드 대표이사 1억 5000만원

연세암병원 발전기부금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이우성 SGC에너지 대표이사, 이우일 유니드 대표이사가 최근 연세암병원 발전기부금으로 각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전했다.

연세암병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우현 회장, 이우성 대표이사, 이우일 대표이사와 이상길 연세암병원장, 운영남 대외협력처장, 박정탁 사무처장, 강상욱 연세암병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우현 회장은 “저와 이우성, 이우일 대표님 모두 이상길 병원장님을 비롯해 의료원과 소중



한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번 후원금을 통해 연세암병원이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길 병원장은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우현 회장님, 이우성 대표님, 이우일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연세암병원이 대한민국 암 치료의 선구자로서 역할을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웅 아이투비파트너스 대표 1억원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김기웅 아이투비파트너스 대표가 최근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김기웅 대표는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음을 깨닫고 성장의 결과를 나누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에 후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웅 대표는 2023년 첫 후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환자치료비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신유라 후원자 1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발전기부금

신유라 후원자가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발전기부금 1억원을 후원했다.

신유라 후원자는 “평소 가정의학과에 세심하고

헌신적인 진료에 감사하는 마음이 컸는데 아버지를 본받아 기부를 시작해 기쁘다”며 “앞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신유라 후원자는 아버지 신준식 후원자와 함께 강남세브란스병원의 THE 미래 발전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사로 전하지 못하는 기부 내용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동문회 소식

의대 총동문회, 5차 실행이사회

의대 총동문회는 지난달 20일 의대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5차 실행이사회'를 개최했다. 실행이사회에서는 보직 변경 및 신규 임원 위촉 사항이 공유됐다. 유환욱 기획위원장은 펀드레이징 및 DB 관리위원장을 겸직하게 됐으며, 이동훈 기획이사는 복지위원장으로, 김주영 역사이사는 역사·문서위원장으로 각각 보직이 변경됐다. 의대 최진영 교수(영상의학)가 장학위원장으로, 이광현 동문(09년 졸)이 역사이사로 새롭게 위촉됐다. 총무이사 중점 보고사항에서는 2026년도 1분기 연회비 납부 이벤트 결과와 향후 연회비 납부 독려 계획이 공유됐다. 연회비 납부 추가 안내는 오는 7월 13일, 9월 7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연회비 납부 이벤트는 8월 말, 11월 말, 2027년 2월 말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기획위원회는 제휴카드 도입과 홈페이지 배너 광고 추가 모집 등 총동문회 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했으며, 복지위원회는 14일 신라CC에서 개최한 총동문회 골프대회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의료선교위원회는 10월경 짐바브웨 소아비뇨의학과 의사 조세핀 웨페이 치가바티아-쿠사노가 세브란스 동문 국제 펠로우십 예정임을 보고했다. 정보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 리뉴얼 추진 계획을, 간행위원회는 8월 1일 발행 예정인 하계 동창회보 제작 준비 상황과 광고 협찬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의대 총동문회, 교실 전문과 회장단 간담회

의대 총동문회는 지난달 18일 교실 전문과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는 이재범 총동문회장과 최재영 의대학장을 비롯해 12개 교실 전문과 회장 등 19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최재영 의대학장은 의대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

표했으며, 허동화 총무이사는 총동문회의 주요 회무와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이재범 회장이 모임의 취지를 설명하며, 각 교실전문과 회장들에게 여러 협조 사항을 요청했다. 특히 총동문회의 동문 DB 구축 사업과 관련해 각 교실별 동문 데이터 제공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동문 소통 플랫폼인 '세란동문톡' 가입 확대와 연회비 납부 및 회원 혜택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총동문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각 교실 및 전문과 단위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열 명예교수·이채연 동문, 연세대 '자랑스러운 여동문상' 수상

이정열 연세대 명예교수(간호대 74년 졸)와 이채연 동문(간호대 80년 졸, 전 연세대 여자총동문회장)이 지난달 30일 연세대 총장공관 뜰에서 열린 '2026 연세대학교

여동문의 날' 행사에서 각각 '자랑스러운 여동문상'과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정열 명예교수는 글로벌 간호교육과 인재 양성에 헌신하며 연세간

호의 위상을 높인 점을, 이채연 동문은 연세 여동문사회의 화합과 발전, 여성 리더십 확산을 위해 꾸준히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준명 미주동창 4만달러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
박준명 미주동창(의대 59년 졸)이 최근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 4만달러(약 5774만원)를 기부했다.

박준명 동창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이 희귀 난치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더욱 큰 힘을 전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준명 미주동창은 지난 2009년 첫 후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모교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오고 있다.

원종철 삼원인쇄 회장 5000만원



의대 정형외과학교실 발전기부금
원종철 삼원인쇄 회장이 최근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발전기부금(임상)으로 5000만원을 기부했다.

원종철 회장은 "항상 환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박관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세브란스를 찾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으실 수 있도록 후원금이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원종철 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누적 1억 5000만원을 후원했다.

이선정 SJ건설 대표, 고순길 동양산업개발 대표 5000만원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



이선정 (주)SJ건설 대표, 고순길 (주)동양산업개발 대표 부부가 최근 연세암병원 완화의료

센터 발전기부금(빛담)으로 5000만원을 후원했다. 이선정·고순길 대표는 "완화의료센터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힘든 싸움을 이겨내고 계신 환자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밝은 웃음을 되찾아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The Great Future 미래발전위원회 이선정·고순길 대표는 연세암병원·치과대학병원·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발전기부금 등 의료원을 향한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신인석 후원자 5000만원

의대 비뇨의학교실 발전기부금

신인석 후원자가 최근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발전기부금으로 5000만원을 전했다.

신인석 후원자는 "한현호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심한 진료에 큰 감동을 느낀다"며 "지속적으로 비뇨의학교실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유태 법무법인 민 고문변호사 5000만원



의대 신축기부금
민유태 법무법인 민 고문변호사가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5000만원을 후원하며, 지난해 11월 약정한 총 1억원을 완납했다.

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보낸다"며 "최재영 의대학장님을 비롯해 항상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The Great Future 미래발전위원회 민유태 고문변호사는 이번 후원을 통해 누적 1억 6000만원을 전했다.

민유태 고문변호사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의과대학 신축에 연세의 일원으로서 도움

문익상 연세대 명예교수 3000만원



강남세브란스 치과병원 치주과 발전기부금
문익상 연세대 명예교수가 최근 강남세브란스 치과병원 치주과 발전기부금으로 3000만

원을 후원했다. 문익상 명예교수는 "강남세브란스 치과병원 미래발전위원회 창단식 이후 후원을 결심하게 됐다"며 "강남세브란스병원 치주과에 종사하는 동료와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영수 후원자 3000만원

의대 각막이상증연구소 기부금

최영수 후원자가 최근 의과대학 각막이상증연구소 기부금으로 3000만원을 전했다.

최영수 후원자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전익현 교수님과 모든 의료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후원금이 각막이상증 분야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아암 환아와 함께하는 운동회 용인, 임상과장 워크숍 개최

연세암병원이 지난달 16일 서초종합체육관에서 소아암NGO한빛과 함께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운동회를 진행했다.

운동회에는 환아와 가족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병원 의료진과 환자 모임 기린아, 연세대 사진동아리 연영회, 포토블링, 도런도런 등 후원자 12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신발 던지기,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선물 증정

시간도 가졌다.

한 참가 가족은 “아이가 이따위로 즐겁게 뛰어놀았던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다. 아이들의 건강을 바라는 같은 마음으로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며 큰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무엇보다 의료진분들과 함께 했기에 안심할 수 있었고 즐겁게 즐길 수 있었다”고 연세암병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12일부터 이틀간 힐마루 골프앤리조트 포천에서 2026년 임상과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운영전략위원회와 임상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병원 경영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워크숍에서는 홍지만 기획관리실장이 발표자로 나서 ▲경영현황 ▲임상과 간담회 결과 ▲암센터 건축 경과 ▲연구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



각 임상과별로 진료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의대 이지혜 교수(용인 대장항문외과)와 이은혜 교

수(용인 입원의학과)의 진행으로 박진오 병원장과의 토크콘서트 시간도 마련돼 병원의 비전을 공유했다.

너무 빨리 배우는 아이들

저자 | 의대 천근아 교수(정신과학)



의대 천근아 교수(정신과학)가 영유아기 조기교육이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뇌과학 관점에서 짚은 신간 '너무 빨리 배우는 아이들'을 이달 5일 출간했다.

이 책은 '4세 고시',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조기교육 열풍 속에서 부모의 불안과 조급함이 아이의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천근아 교수는 30년간 17만 명의 소아청소년을 진단·치료해 온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발달단계를 거스르는 과도한 학습 자극이 아이의 전두엽과 정서 발달에 미치는 위험성을 설명한다.

인간의 뇌가 DNA에 입력된 순서에 따라 발달하도록 설계돼 있다. 영유아기는 정서 조절,

자기 조절력, 회복탄력성 등 평생 학습 능력의 토대가 되는 뇌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다. 천 교수는 이 시기에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인지 자극이 반복되면 뇌가 학습을 위한 안정적 상태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생존 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영유아기 뇌 발달의 원리와 너무 빠른 학습이 아이 뇌에 남기는 영향을 다룬다. 2부에서는 과도한 인지 자극과 스트레스가 시냅스 가지치기, 전두엽 기능, 정서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3부에서는 인지력 좋은 아이의 뇌에 필요한 정서적 토대, 자기 조절력, 몰입 회로, 회복 강화 회로를 소개한다. 4부에서는 스킨십, 오감 자극, 기질 이해, 습품 노출 관리, 자유와 한계의 균형 등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뇌 양육 원칙을 제시한다.

[무선/248쪽/18,800원]

정신분석으로 본 독일 정신사

저자 | 의대 이성훈 동창(79년 졸)



이성훈 동창이 독일 역사를 정신분석과 인격 발달의 관점에서 살펴본 책 '정신분석으로 본 독일 정신사'를 최근 발간했다. 책은 독일을 '정신의 나라'로 바라보고, 독일의 역사 속에 나타난 정신세계와 인격 발달 과정을 분석했다.

저자는 독일이 과학, 철학, 문학, 음악 등에서 인류 문명을 선도했지만, 동시에 두번의 세계 대전이라는 참혹한 역사도 남겼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 정신의 양극성과 이중성, 억압과 폭발, 현실과 이상의 충돌 등을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했다.

책은 독일 역사 속에 나타난 정신의 흐름을 문학, 철학, 신학, 미술,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문

화 영역을 통해 살핀다. 독일 정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짚고, 괴테와 쉴러, 쇼펜하우어와 니체, 프로이트 등 독일 정신사에 영향을 준 인물과 사상을 폭넓게 다뤘다.

1장 '역사 속에 나타난 독일 정신'에서는 독일의 공동체성과 통일국가 형성, 전쟁과 민족주의를 다룬다. 2장 '독일 정신의 양극성과 이중성'에서는 현실과 이상, 억압과 폭발 등 독일 정신의 특징을 분석한다. 3장 '독일 정신의 뿌리와 정체성'에서는 숲과 신화를 중심으로 독일의 문화적 기반을 살핀다. 4장 '문학 속의 독일 정신'에서는 독일 문학사를 인격 발달의 흐름으로 해석한다. 이어 철학, 기독교와 신학, 미술, 영화, 음악 등을 통해 독일 정신의 형성과 변화를 조명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독일의 미래를 정신분석적으로 전망한다.

[도서출판 성인덕/664쪽/33,000원]

농촌으로 찾아가는 세브란스

세브란스-NH농협생명 농촌의료지원사업 봉사단은 지난달 23일 충북 충주에서 진료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총 33명이었다.

